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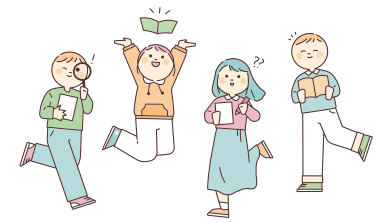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2023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아카데미코칭센터



C · O · N · T · E · N · T · S

I. 아카데믹코칭센터장 인사말_ 04

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_ 05

I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_ 07

- 전과와 함께하는 나의 성장이야기 08
- 새로운 출발, 다시 쓰는 꿈 14
- 성공의 물결, 할 수 있다! 17
- 복수전공을 시작하며 달라진 나의 삶 21
- 끝없는 파도 속에서 물장구를 치느냐, 빠지느냐? 24
- 나를 되찾아가는 과정 28
- 변화와 발전을 향한 나의 학업 여정 34
-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채워나가는 나의 학교생활 라이프 38
- 새로운 도전, 넓은 시야! 생명공학과 경영학의 만남은 나의 이야기 41
-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47
- 학적변동(전과) 성공 사례 53
- 불안감에서 자신감으로 경험을 통해 성장한 1년 56
- 나 자신을 이기는 대학생활!!!! 61



I .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II .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아카데미코칭센터에 관심을 갖고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용기로 시작한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공사례 공모전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도전과 성과로 도출된 성공사례집의 공유를 통해 동일한 고민을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카데미코칭센터 소장 **황진섭**



학적변동 성공사례 공모전 소개

가. 공모전 목적

1. 대학 내 학적변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올바른 학적변동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양질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
3. 학생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확산 및 정보 공유

나.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2023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2. 공모 주제: 학적변동(휴·복학, 부·복수(융·복합)전공, 전과, 편입, 재입학) 성공사례

다.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 심사위원

소 속	성명	성명
통계학과	황진섭	아카데미코칭센터장
화학교육과	김보혜	교수
시각디자인융합학부	최영	교수

- 심사기준

심사기준					
영역	주제 적합성	전달력	완성도	경험성	활용성
배점	20	20	20	20	20
총 배점 : 100점					



Ⅲ.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



제목 Title	전과와 함께하는 나의 성장 이야기		수상	최우수상
			학과(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주제	전과	학년	2학년

전과와 함께하는 나의 성장 이야기

여러분은 학창 시절부터 꿈을 확고히 가져 학과를 정하고 직업으로 택해 먹고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는 것에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한 번에 정하고 그게 천직이 되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개중에는 결국 적성을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먹고살기 위해 직업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젊을 때 다양하게 부딪쳐 보고 도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택한 도전은 이 글에서 소개할 ‘전과’라는 제도입니다. 단락에 맞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생에서 전과와 복학한 뒤 2학년 1학기 수석 달성까지의 과정과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중간중간 전과를 고민하는 학우들이 겪을 고민에 대한 저만의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전과로 나아가는 과정 : 나의 비대면 새내기 시절

처음에는 성적 맞춰 대학과 과를 선택했습니다. 별생각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공대가 취업은 잘된다고 하니 그냥 왔습니다. 당연히 목표도 없으니 수업은 지루하고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대학을 다니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는, 그냥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계가 풍족하지 않은데도 특수하게 국가장학금이 나오질 않아 공대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내고 다녔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고 이렇게 대학을 다니기는 싫었습니다. 공부해야만 했고 장학금을 따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대학 첫 버킷리스트는 과 수석이 되었습니다.

중, 고등학생 때도 계속 발목 잡았던 물리와 수학 과목,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대로 다시 배웠습니다. 당연히 못 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살길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쳐진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배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학교에 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공부했고 1학년 1학기 결과는 평점 4.13에 57명 중 7등이었습니다. 과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제 성에 차지도 않았습니. 게다가 1학년 때는 성적 산출 방식이 절대평가였기에 노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성적을 보장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캠퍼스 생활도 즐기 못하고 의지 하나로 독서실에서 억지로 공부만 했는데 성적까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전과를 접하게 된 계기는 도피성 때문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마냥 공부가 하기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강하던 강의 중에서 수업 목적으로 ‘코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실습을 간단히 했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실습 내용은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제공되는 캐릭터에게 배드민턴이나 저글링 같은 행위를 구현하는 과제였습니다. 과제를 하는 내내 즐거웠고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처음 코딩을 접하고 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제 진로의 방향이 얼추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전과 결정의 계기 : 흥미가 있다면 겁내지 말고 도전해 보라

코딩은 모니터 상으로 무엇이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에 쫓혀 1학기가 끝나고 동안 컴퓨터 언어를 독학하여 기초적인 구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방학의 목표는 ‘영어단어 암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단어와 뜻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메모장에 단어를 저장해놓고 뜻을 출력한다면 영어단어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 형식의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문법도 잘 모르는데 응용까지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웠지만, 꾸역꾸역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만큼 흥미가 생겼다는 방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이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다!”라고 생각했고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새 학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코딩에 빠졌고 이제 “어떻게 하면 코딩을 깊게 배우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제 입학 당시 학과는 ‘정보통신공학과’였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와이파이, 네트워크, GPS와 같은 통신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학과입니다. 코딩을 배우긴 하지만 주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결심했고 목표 학과는 ‘컴퓨터공학과’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언어의 활용,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등을 배웁니다. 보시다시피 서로 배우는 것과 진로 방향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매우 다른 학문은 아니라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공통점으로 수학이 중요하다는 점은 신물이 났습니다.

전과 과정 : 길을 찾는 여정

이제 제가 2학기 때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과할 수 있는 성적과 면접 지식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컴공과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언어를 독학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이쪽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과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할 건데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효율이 배가 됐습니다. 하기 싫은 과목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학기 때보다 높은 4.35라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우들이 있었고 등수는 5등으로 이번에도 제가 목표하는 수석이라는 소원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의 마지막 상담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학과를 버리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앞섰는데 교수님께서 제 길을 응원한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덕담을 해주셔서 기대에 부응하고 열심히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혹시나 전과를 고민하는데 교수님과의 마찰 때문에 겁내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부딪쳐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수님이시라면 제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을 때 밀어주실 겁니다.

전과는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몇 번씩 압초를 만나며 어려운 결정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어찌지?”, “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저 같은 경우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의문점에 재차 대답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전과 과정을 마무리 지었고 컴퓨터공학과로 학적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군 복무를 위해 휴학했습니다. (전과할 시에는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수라도 자동 취소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학 :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낙엽이 쌓이던 2022년 가을날 저는 전역 절차를 밟았고 다시 사회인이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 복학을 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1학년을 비대면으로 보냈기에 학교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신입생과 다르었는데 몸은 복학생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과에대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알던 학우들도 떠나보내고 혼자 연고도 없는 과에 왔기 때문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해 봤자 의미 없고 겪어 봐야 아는 문제기에 저는 제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두려움을 한편으로 두고 복학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6개월간 멈췄던 머리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다시 복습했으며 처음부터 다시 새로 배웠습니다.

전과 후 변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다

전과 후 컴퓨터공학과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1학기는 실습을 통한 구현보다는 컴퓨터 자체의 구조에 집중하는 이론 수업이 주였습니다. 예상보다 어려웠고 버거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현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깊이 들어가니 어려운 알고리즘과 용어는 절 괴롭게 했고 공부해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공 수업들이 어렵다 보니 애써 감춰왔던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학우들은 1학년 때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내가 독학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며 불안했습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중간고사 때까지 꾸역꾸역 공부했습니다. 때마침 방황하고 있던 제게 현지도 교수님과 상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고민을 허투루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상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남들도 저와 비슷한지, 묵묵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와 같이 모두 전공생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을 여쭙봤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은 다른 학우들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1학년 때는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학업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은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됩니다. 소수의학생들을 제외하면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교과목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반복 숙달만이 살 길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노력하면 나아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놓였고 여유를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수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뭘 강조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배우는지, 교수님께서 바라는 학습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주안점에 집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상태에서 학습 전략을 짜고 공부했습니다. 수강 과목들이 어렵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니 공부의 목적이 생기고 의욕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한 학습법을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선배배님들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의 학습법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업 시간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기
2.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필기하기
3. 이해될 때까지 무한 회독과 질문하기
4. 중요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시험문제 직접 만들어 풀기
5. 시험 기간에는 정리 노트 만들고 점검하기

공부에 왕도는 없다 생각해 특별할 건 없고 어찌 보면 당연한 저의 공부법입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성적과 등수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성적은 4.5점 평점으로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지만, 과목별 등수는 조금씩 밀려 요번에도 학년 1등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석차 표에 당당히 1등이 찍혀있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그토록 갈망하던 과 수석이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2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해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역시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전과로 얻은 성장과 교훈

과탐을 달성하고 나니 주변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게 관심이 없던 친구나가 용돈을 주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사장님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말에 힘이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작게나마 경험했습니다. 수사학(설득)의 3요소가 떠오릅니다. 연설가의 사회적 위치, 감정, 논리력을 말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 사회적 위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없는 선배님들께선 굳이 성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증명할 물리적 수단을 하나 정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물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공인된 무언가는 무시하기 힘들다고 이번 기회에 느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남들보다 심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위낙 자존감이 낮은 탓도 있고 성적 부담에 항상 예민했습니다. 덕분에 학교 적응도 어려웠고 교우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줄 알게 되었으며, 성취를 통해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과 제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과를 하지 않았다면 위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싫어하는 과목을 억지로 수강했어야 하니 아마 배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과한 뒤 좋아하는 대상을 탐구하고 익히니 과목

이 어려운 것과 별개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전과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배경지식을 쌓은 뒤 전과를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추진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되지 않고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제 꿈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전과의 덕을 본 제 입장에서 학교 측이 전과에 대해 소개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과를 고민하는, 전과를 모르는 학우들이 이벤트를 통해 접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능을 요하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며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도 해냈습니다. 아르바이트 힘들 테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고 계신 일 모두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Title	새로운 출발, 다시 쓰는 꿈		수상	우수상
			학과(부)	사회복지학과
	주제	편입학	학년	3학년

새로운 출발, 다시 쓰는 꿈

품고 있던 꿈을 향해

27살이란 조금 늦은 나이에, 대구대학교에 편입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며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던 중, 졸업 후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조금 뒤로 한 채,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학하던 몇 명의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후,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우연히 대구대학교 찾아가는 입학 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다!”하고 생각하던 찰나 입학 컨설팅을 고민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상담을 신청하고 동대구역 어느 카페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편입을 신청하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편입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합격’이라는 문구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걱정도 잠시, 마냥 부러워하고 꿈꿔왔던 학교, 학과에 합격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온다니”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자랑하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학교에 가서, 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갔던 것에 대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떨리는 새 출발

처음 대구대학교의 합격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먼저 입학 전 이제부터 다닐 학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을 학교생활의 미리 학교 캠퍼스를 미리 거닐면서 학교에서

혼자 산책하였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하는 마음으로 산책을 끝낸 후,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꿔 왔던 꿈에 조금 더 전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새로운 떨림과,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하였습니다. 몇 년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여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 을 많이 고민하고 싶었던 만큼 제게는 새 출발은 큰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고민을 하고 있던 기간에 주변의 조언들과 긍정적인 말들 덕분에 새로운 출발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 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큰 결정을 내린 저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것을 꿈꾸고 뭘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서투러도 괜찮아

수강 신청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처음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고, 방법을 알아본 결과 성공적으로 수강 신청을 한 후, “이것이 첫 단추다!”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학교에 관련된 새로운 앱들을 깔면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강의계획서를 보는 순간, “이제 내가 정말 대학생이네” 하는 기분이 다시 들었습니다. 첫 수업을 하고 수업을 계속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받아본 과제와, 시험들이 저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다시 고쳐볼까?” 다시 수정하고 고치며 다양한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조별 과제도 수월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동기들과 조별 과제를 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학교에 조금 늦게 들어온 터라, 진로에 대한 걱정과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는 어떠할지, 교우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생활 상담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간 관리 방법, 적성검사, 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 생활 상담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였던 순간들이 희망으로 바뀌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찾고 배우는 즐거움

대구대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수어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어 교실을 개강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고 수어교실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어 교실을 참여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꿈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동아리 중 제가 관심이 있는 수어에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손누리' 동아리도 가입하였습니다.

또, 저는 정신건강 사회 복지론을 수강하는 중 '게이트키퍼'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한다는 공지를 보고 게이트키퍼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들이 많아서 더욱 학교생활에 재미를 더하게 되고 배우는 즐거움이 커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영역을 넓혀 더 큰 꿈을 향하여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진로에 대한 꿈이 점점 더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쓰는 나의 미래

꿈꿔왔던 학교에, 조금 늦은 나이로 입학하였지만 1학기를 보내고 난 후 대구대학교에 입학 을 하여 한학기가 지난 지금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만에 친 중간고사가 조금 떨리기는 하였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즐거움이 더 크 고 기뻐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학교에 왔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봉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이지만 앞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학교에서 펼쳐 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미래를 그려보며 앞으로는 사 회복지사에 대한 꿈을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보육교사라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대학교 편입학을 통 해 "아, 내가 사회복지사를 꿈꿔왔지"하고 마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마음의 변 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성장할 미래를 위해, 다시 쓰는 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처음의 불안감과 긴장, 떨림은 조금씩 사라지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기대가되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더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기회를 통해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제목 Title	성공의 물결, 할 수 있다!		수상	우수상
			학과(부)	수학교육과
	주제	전과	학년	4학년

성공의 물결, 할 수 있다!

“긍정적 마인드셋과 불확실한 삶, '할 수 있다!'의 힘”

인생은 종종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최 선을 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변화가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생명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때로는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조절 가능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마인드셋과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목표를 가지는 것이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절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 올림픽 때 펜싱 박상영 선수의 “할 수 있다!”의 기적을 본 적이 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컨트롤하여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통해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만들어 낸 이야기이 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 셋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동기 부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긍정 적인 마인드셋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성과 성장을 촉진한다. 이처럼 관계도 개선되고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다.

학적변동 성공 사례 공모전을 참여하면서 내가 전과로 인해 어떻게 변해가고 어려운 난관들 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4학년에 와서 되돌아보니 내 인생 성공의 물결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 적인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내가 살아온 삶을 잠깐 이야기하고 전과하면서 느꼈 던 경험을 통해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한다.

긍정과 인내로 이뤄낸 성공의 길, 거북이의 전과 이야기

나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속 주인공 중에서 거북이에 해당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하면 남들보다 느리게 습득하고 느리게 일을 해결해 나갔다. 그런 나에게 수학은 메리트가 있었다.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수학을 싫어하지만 나는 느릴지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어 거북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낸 것 같다.

내가 전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 나는 중학교 때 또래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였기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가르쳐 주면서 나로 인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수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친구를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수학은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잘하게 되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대구영재교육원에 수학 분야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중학교 생활과 달리 고등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수학을 좋아했던 나는 다른 과목은 좋아하지 않았기에 다른 과목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면서 수학을 계속하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길이 맞는지 되뇌어 보면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후회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미래를 생각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학을 열심히 해왔기에 수학은 공부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 치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처참했다. 수학만 좋아했던 나는 다른 과목의 베이스가 탄탄하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교 원서 날이 다가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교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수학교육과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성적이 따라주지 못해 수시로 여섯 군데 중 다섯 군데를 수학과를 내고 선생님의 꿈을 버리지 못하여 그 당시 경쟁률이 낮았던 대구대 물리교육과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구대 물리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물리교육과에 입학하고 물리는 과목 특성상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적 내용을 접목하여 탐구하는 것으로 그런 물리가 재미있어서 학교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1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학년 2학기 때 전과 티오에 수학교육과가 1명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옛꿈을 이루기 위해 전과 면접을 보고 운이 좋게 전과를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대에서 수학교육과에 대한 설렘을 가득 가진 채 2020년 10월에 제대하게 되었다. 이제 수학교육과로 처음 복학을 앞두고 코로나가 좀처럼 끝나지 않아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다.

사실 물리교육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전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전과에 대한 마음도 크게 없어서 1학년 때는 물리교육과의 커리큘럼을 따라 수업을 들었다 보니 2학년도 수학교육과에 복학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출발선이 1년 정도 차이가 났다. 그렇게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1학년 내용을 안 배우고 2학년 수업을 듣다 보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교수님의 판서만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공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개강하고 2주 정도가 지나도 수업이 이해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 내린 결론이 1학년 수업을 청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운이 좋게도 1학년 수업의 전과과 내 시간표가 겹치지 않아 청강을 포함하여 30학점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서 매일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만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종일 수업을 들을 수 있던 이유가 1학년 수업을 청강하면서 그제야 2학년 수업이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를 긍정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과하고 2학년 내내 청강을 포함하여 30학점 정도의 수업을 듣다 보니 “이게 맞나?”, “내가 괜히 전과했나?”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그래도 나의 꿈을 향해 계속해서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이겨내 나아갔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3학년도 올라가면서 21학점 정도 들으니 2학년에 비해 널널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1학년 때 했던 Learning SIG와 같은 교내 프로그램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갔다. 그리고 DU 복돋움 독후감 공모전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총장상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더욱 더 향상하게 된 것 같다. 그 이후로 4학년도 삼성생명 금융연수, KNUE 청람포럼, GTU 꿈나라 어울림과 같은 대외활동도 참여하면서 학점 전체 평균이 4점대를 유지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과하고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긍정적 마인드셋과 끊임없는 노력, 극복하는 성장의 길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 온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전과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다른 학적변동에 대해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생의 방향성을 조언해 보고자 나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작성해 보고자 한다.

전과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 전과는 일시적인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패와 전과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더 향상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은 때로 실패와 노력 뒤에 숨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과를 경험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과를 통해 현재의 목표나 방향성을 다시 조정하거나 수정하여 실패와 전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

탕으로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성격, 가치관, 경험 등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실패와 전과로부터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 전과하면서 힘들었지만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오늘의 나로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예로 일반화하여 말하면 의문이 들 수 있기에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과학적으로 뇌는 가소성이 있어 뇌는 계속 변해간다고 한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열쇠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전과나 어려움을 만난 경험도 실패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 다시 도전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전과를 통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에 맞서기 어려웠고,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고, 노력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실패와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통해 지금까지 온 것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삶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추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과와 같은 어려움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항상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보탬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너두, “할 수 있어!” [“야 너두?!, 야 나두!!” - 야나두]

제목 Title	복수전공을 시작하며 달라진 나의 삶		수상	우수상
			학과(부)	초등특수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3학년

복수전공을 시작하며 달라진 나의 삶

계기

대학교에 입학한 후 모교에서 진행하는 고등학생 학업 지원 멘토링을 통하여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로가 바뀌게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선생님이 하고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목의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학급 수준만을 고려하였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교육봉사를 장애인 시설센터에서 지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등 특수교육과에 진학했다. 대구대학교는 특수교육의 뿌리와 같은 학교라고 생각했다. 대학교에 와서 배우는 전공도 흥미 있었고 교수님들도 열정적이고 수업이 재밌었지만 내가 원하는 진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다. 2학년 1학기에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했다. 타 대학 편입/전과/복수전공/대학원 등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중 ‘복수전공’이 눈에 띄었고 대학 내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내가 원하는 복수전공 과는 ‘일반사회교육과’로 같은 사범대학 내 과이다. 사범대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불안했었는데, 다행히도 알아보니 같은 사범대학(단과대학) 내에서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이후로 열심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뒤에서 복수전공을 하면서도 성적을 이전보다 올렸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과정

학창 시절부터 사회탐구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반사회교육과의 전공인 정치와 사회, 문화와 사회 과목을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수강하여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들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리 복수전공 전공과목을 들어보면서 내가 전공과 적성이 맞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리 들어도 불이익인 점이 없다. 왜냐하면 대구대학교는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들었던 과목들은 추후에 복수전공 신청 후 합격이 되면 일반선택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수강하여 들었다. 그 당시에는 타전공 과목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적 또한 모두 석차 2등 이내로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일반사회교육과 복수전공에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었다.

복수전공에 합격한 이후 일반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먼저 확인했다. 교육과정을 확인하니 법과 관련한 과목들이 많아서 생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들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기면 무조건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야 적성에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 희망 근무지를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신청하여 근무 활동을 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타당한 법률을 통하여 도움을 건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흥미를 한층 더 나아가 전공과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3학년 1학기, 법과 사회 과목을 수강하면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정치와 법' 수능 특강 교재를 분석하고 이를 모교 멘토링에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제로 '정치와 법' 과목에서 성적이 오른 학생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중등학교 일반사회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니 학업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다.

유의점/팁

사범대학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교직 사정을 유의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졸업 사정과 교직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졸업 사정은 단순히 졸업을 위해 채워야 하는 학점을 정리해 둔 부분이고 교직 사정은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전공과 학점들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졸업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총 학점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들어야 하는 학점이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처음에 나는 복수전공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확인했었을 때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의문 사항이 나 모르는 점이 생길 때 곧바로 과 사무실, 학사지원팀, 교직팀에 전화로 문의하면서 스스로 채워야 하는 학점과 필수 전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전후 변화

복수전공을 하게 된 후 바뀌게 된 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난 후에 오히려 성적이 더 오르게 된 경우에 속한다. 왜냐하면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나서는 한 학기에 전공을 6~7과목을 수강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통학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는 내가 가진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그렇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부법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시험 기간에 통학하는 시간과 공장 시간에 이전 수업을 복습하거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외우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이렇게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은 후 공부법과 관련한 ppt를 만들어서 대구대학교 내 교내 학습법 공모전에도 시도하여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 복수전공을 시작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보고 찾는 연습을 하면서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점차 바뀌었다.

느낀 점

복수전공을 하면서 얻게 된 장점들이 많다고 확신했다. 우선, 졸업할 때 교원자격증을 2가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을 2가지 취득하면 훗날 임용이 안 되었을 때는 기간제 교사나 전공 관련 회사로 갔을 때 폭이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내가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학부생 동안 더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시간적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수전공을 통해서 흥미 있는 수업을 더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복수전공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내 주변 친구들에게도 관심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복수전공을 시작하게 되면 본 전공과 시간표도 틀어지고 혼자서 강의를 듣는 일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학기가 끝나면 뿌듯하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하고자 하는 공부를 대학교 내에서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제목 Title	끝 없는 파도 속에서 물장구를 치느냐, 빠지느냐?		수상	우수상
			학과(부)	심리학과
	주제	휴학, 복수전공	학년	3학년

끝없는 파도 속에서 물장구를 치느냐, 빠지느냐?

누군가는 제게 ‘큰 기대 없이 한 선택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저의 꿈, 즉 청사진을 향해 가까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그것을 빛내기 위해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걸어오던 발자국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끝없는 변화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힘겨웠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휴학 기간을 통하여 끝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청객의 방문으로 인한 공허함

2020년 3월에 입학할 당시에 저는 꿈꾸던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품으며 대학 생활을 즐길 생각에 가슴이 매우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해 초부터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 정부, 음식점 등 모든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완전히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에이 설마 아니겠지’라는 조금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의 희망은 깨져버린 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공지를 안 내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갓 입학하였는데 새내기 시기를 알차게 보내지 못할 거 같다는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정도만 지나면 종식될 거라는 약간의 희망 끈을 잡아 보았지만 이러한 제 마음을 모르는지 그 기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까지 대부분 비대면 수업만 하고 대면 수업이라고는 전공 수업도 아닌 필수 교과목인 ‘빅컨셉’을 듣기 위해 주 1회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 학업 공부를 정말 성실히 하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성적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학교에 다녔음에도 같은 학과에 어떤 학생이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봤자 학교생활을 경험

하지도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시간은 눈치 없이 흐르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같이 학교생활을 함께하는 학우도 없는 데,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이 맞냐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전환점의 시작점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계속 누적되다가 고민 끝에 3학년으로 올라갈 시점에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휴학의 커리큘럼처럼 저 또한 자격증 몇 개를 따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여 돈을 벌어야겠다는 단순한 계획 정도만 가졌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하게도 이전에 학업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주변 학우들은 수강 신청을 하거나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닌, 한두 달이 지나고 난 시점부터는 어느 순간 놀고먹기만 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타인들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하는 걸까?’라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 나태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가 학생 신분에서 제일 접근성도 좋으며, 수익도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좋을 거 같아 선택하였습니다. 한 곳에서만 일을 하면 일이 끝난 후 다시 나태해지는 순간이 올 거 같아서 제과점과 커피숍 두 군데를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기 마련이기에 선택할 당시에는 상상했던 것과 달리 훨씬 더 힘겨웠습니다. 특히 개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일에 적응하면서 고객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잘 되고, 일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동료 직원 또는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더욱더 업무에 자신감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해당 업무를 하면 할수록 제가 고객 응대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이 일을 하며 즐겁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직무와 기업을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그중에서 당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이디야 커피에 대해 기업 분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무하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상표 평판, 유니폼 등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 직무 중 슈퍼

바이저(SV)라는 직무에 대해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을 할 때도 저는 거의 매니저 직급의 업무를 도맡았으며, 주변 직원들을 관리하며 제가 통솔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즐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영업 관리 직무에 점주와 점포들을 관리하며 컨설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성향에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고객 응대에 미흡한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겠냐는 제안을 하고, 동료들은 제가 준 피드백을 수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매니저님에게도 매장 관리를 할 때 번거로웠던 부분이나,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컨설팅 자료까지 넘겨서 설득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더라도 책임감을 지니고 가게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 응대에 더욱더 큰 흥미를 느끼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저의 진로의 방향은 이미 짜인 청사진을 향해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휴학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변화와 경험을 겪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시간만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휴학을 함으로써 사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끝내 저의 꿈에 대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계는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코로나는 점점 잠잠해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023년에 '꿈'을 가지고 새내기처럼 기대감을 품고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학업에만 열중했더라면 이제는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진로들이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꼬리를 물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형태에 속하는 이디야 커피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 지식이 갖추어져 있다면 입사하는 데에 더 수월하고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복수전공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영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기에 고학년 수업을 바로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여 1학년 수업인 경영학원론, 회계 원리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회계 수업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지루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것은 온데간데없이 회계 수업을 배우면 배울수록 매우 흥미로웠으며, 해당 문

제를 풀 때마다 도파민을 왕창 붓는 것처럼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정말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면 그 걱정과 달리 문제도 잘 풀림과 동시에 즐거움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즉, 평소에 저는 살아오면서 스스로 한계점을 미리 정해놓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점이 22학점이라고 한다면, 저번 학기보다 듣는 학점이 더 많기 때문에 만점을 받지는 못할 거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인간은 어떤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것에 맞추기만 해도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미궁 속에 갇힌 채 발버둥만 치기만 하고 나오는 출입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 같다고 느껴져도 '나는 이번 학기 4.5를 맞을 거야'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따라 인간은 움직이게 됩니다. 마침내 그 목표는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 변화가 찾아오게 되며,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자격증과 같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생긴다면 선택지로 휴학 또는 복수전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저처럼 본인의 성향에 맞는 직무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꿈을 찾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미래 계획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최소 6개월 동안 근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자료조사를 해야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대학 기간에도 막막하거나 두려운 순간이 끝없이 다가오게 되겠지만, 나의 한계에 맞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완성된 청사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문장을 적으며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먼저 설정하는 것이 아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제목 Title	나를 되찾아가는 과정		수상	우수상
			학과(부)	수학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휴학	학년	3학년

나를 되찾아가는 과정

“휴학하면 힘든데 왜 사서 고생해?”

한 번쯤 휴학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많이 들었을 법한 이 한마디는 나 또한 휴학을 고민하기 전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었다. 이 한마디에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했다. 휴학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 동안 지식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복학하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휴학하는 기간이 달콤해 마지막은 자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등 여러 이유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큰 변화를 싫어했던 내가 저런 말들을 자주 들어오다 보니 휴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휴학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거라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휴학과 복수전공이라는 선택을 할 거라고는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누구인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 한다.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해 남들보다 수학을 조금 더 잘하는 그리고 수학을 정말 좋아하던 아이, 하지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이과가 아닌 문과를 선택해 수학을 1등급 받은 아이, 좋아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해 취업이 빠른 학과나 전문대를 지망한 아이,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권유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로 딱 한 곳에 원서를 넣은 아이, 그게 바로 나 ‘이다영’이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영향은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었다. 마음이 텅 빈 듯 여유가 하나도 없던 아이는 결국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까지 와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며 보냈고 그때의 시간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앞날은 깜깜하기만 했고 주변 시야도 막히고 나를 더 숨기기 바빠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에게 다가온 시련과 마음의 변화

코로나는 나뿐 아니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진 까닭이라 생각한다. 나는 교차지원으로 진학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했고 성적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 학사경고를 겨우 피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다시 열심히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교차지원으로 인해 중등 수학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선수과목들의 지식도 쌓아 올리지도 못한 나에겐 도리어 자존감만 낮출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모습을 계속 되새길 뿐이었고,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놀기만 했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할 뿐이었다. 미래 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미래가 캄캄하기만 하니 자존감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계속되었다. 이 지경이 되니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데도 모르겠고 빈 껍데기처럼 출석만 채우기를 반복하고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며 지내니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농담처럼 했던 ‘나 학점 망했어~ 내가 너 밑에 깔아주고 있으니까 어서 힘내!’라는 말을 계속해 온 내가 창피해지기 시작했다. 시험지를 낼 때마다 ‘오늘은 내가 금메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서 교수님의 눈치를 보는 것도 싫어졌다. 주변의 학우들처럼 교수님에게 전공지식에 관해 얘기하며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가지고 싶었고 과거 고등학생 때처럼 모범생이라는 이미지로 교수님께 인식되고 싶었다.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학생’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해 낸 것이 학적변동이었던 것 같다. 당시 2학년 2학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라 솔직히 너무 늦지 않았나 란 생각에 두려움도 컸다. 항상 지나가는 대로 살아온 나로서는 걱정도 많았고 여러 생각에 잡히게 되었다. 여태 2년 동안 배워온 수학교육과에서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 싫었다. 그렇게 떠올린 것이 ‘복수전공’이라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해 또다시 같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자기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 그걸 위해서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 내가 고등학교를 재학 중일 때 수학 과목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도 좋아하는 것에 쫓으면 그거 하나에는 그 누구보다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해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려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다. 암산하는 것도 남들보다 빨라 수학 문제를 풀 때면 남들보다 2~3배는 빨리 풀고 정확도도 높았다. 숫자의 흐름에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고 남들보다 잘하고 칭찬을 자주 듣는 이유여서인지 숫자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내 특징은 대학에 올라와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큰 요소가 되었지만 그 순간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 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도 나는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단서를 통해 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서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서 해결하고 한 문장에서 논리적으로 참인 문장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과정들이 재밌었다. 예를 들자면, ‘3명 중 한 사람만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쟁이를 찾아내세요.’라는 문제가 제시되면 3명의 말에서 단서를 통해 추리하여 답을 찾아내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 내가 무엇을 할 때 보람을 가지고 잘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숫자의 분석 및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대구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수시모집 요강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내 적성과 잘 어울려질 학과가 어디인지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회계학과’를 찾게 되었고 그 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회계학과는 배울 수 있는 범위가 다양했다. 재무에 대해서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감사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며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등 회계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었다. 회계학과가 어떤 과인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나에게 딱 맞는 전공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운명인 것처럼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항상 결정을 미루고 미루는 성격이었던 나는 처음으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게 내가 회계학을 접하게 된 배경이었다.

한 템포 쉬어가기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병법서에서 유래한 말로 대다수의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본 말일 것이다. 과연 내가 회계에 대해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똑같은 시간만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한다. 나에게 있어서 ‘지피(知彼)’의

대상인 회계가 어떤 것인지는 알아두게 되면 최소한 싸움에서 내가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은 시간이란 것이 충분하지 못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학습 패턴은 너무 망가져 있었으며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했다. 2학년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2점 초반대에서 후반대로 조금은 성장하였지만 마음 가짐만으로는 초석을 닦을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쉬어갈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떠오른 생각은 바로 ‘휴학’이었다.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라 했던가? 나에게 휴학이 일보 후퇴였다.

휴학일기

솔직히 말하자면 휴학을 결심하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다. 주변에 휴학했던 친구가 거의 없었을뿐더러 간혹 휴학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은 나처럼 2학년이 아닌 1학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수전공도 3학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뭐가 두렵겠냐는 생각으로 휴학했던 것 같다.

휴학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다름 아닌 휴식이었다. 누군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고 물었지만 휴학이란 학업을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이지 않은가? 나에게 휴식만큼 제일 필요한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휴식에 조건은 있었다. 바로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휴식이라 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 거리를 걸었다. 다들 자신만의 일정을 보내는 시간에 나는 산책을 해보았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운동을 시작하며 사람을 만났다. 이런 일상을 한 달 정도만 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삶에 활력이 생겨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항상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몽롱했던 정신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달 만에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주변을 보니 공기가 너무나도 상쾌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 공부가 하고 싶었다. 인간은 배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말처럼 누가 하라고 할 때는 하기 싫던 공부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다. 나는 다짜고짜 자격증 위주로 찾아보았다. 목표도 없이 공부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보상 심리가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회계는 정말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지만 나는 그 중 고등학생 수준의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 공부한 회계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듯이 너무 재미있었고 자격증 준비 2주 만에 합격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준비하는 시간보다 반 이상은 빠른 시간이었다. 나는 다음 단계의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목표를 바꾸기로 했다. 바로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닌 자격증 취득 수준의 지식을 쌓는 것으

로 말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실무에 뛰어들었다.

나는 운 좋게 스타트업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회사 초기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업무는 널널한 편이었고 배움이 빠른 편이라 간단한 실무 업무 또한 가능해졌다. 업무와 공부가 병행되기 시작하니 공부했던 지식을 실무에서 꺼낼 수 있게 되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7개월이란 계약기간 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짧아 보이는 이 시간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 중 나를 제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 휴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탐나는 학생

나는 3학년 1학기로 복학을 하며 2년이란 시간 동안 복수전공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단계별로 지식을 쌓지 못하고 1~3학년의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전에 공부한 자격증이 있어 다행히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나는 학업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고 수업 이해를 바탕으로 필기하려 노력했다. 덕분에 필기하는 데에만 바빴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수업 내용의 포인트만 필기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휴학한 사이 회계학과는 경영학부 회계학전공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회계학전공 교수님들은 티칭이 정말 좋으셨고 기초를 쌓아가는 수업방식으로 진행해 주어 가능한 것도 큰 이유라 생각한다. 나는 이 순간을 '지식을 쌓는 즐거움이 확 와 닿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연구실로 찾아가 질문을 많이 했다. 남들보다 학습 시간이 짧다 보니 질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질문의 답변에 대해 또 생기는 질문들이 많아 메일보다는 대면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웃으면서 나에게 회계가 재밌죠? 라고 물어왔다. 학년이 쌓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업 태도가 너무 좋고 이해도도 높다고 처음 회계 수업을 듣는 것 같지 않다며 나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나를 '탐나는 학생'이라고 불러주셨다. 나는 이날 연구실 문밖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평평 울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보낸 시간이 짧은 시간인지 끊임없이 의심해 왔었다. 그 부분에서 나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내가 해온 1년이란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 한마디는 정말 파스했고 더욱 인정받고 더욱 탐나는 학생처럼 보이고 싶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매번 뒤에서 2등 하던 학생은 이 수업에서 2등이란 순위를 거둬지게 되었다.

학적변동이란

나는 휴학이나 복수전공 등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일단은 도전해보라고, 배움에는 끝이 없고 유한적인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특히 학업에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적변동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적변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지금 방황하는 순간은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쌓아가고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도전하세요.



제목 Title	변화와 발전을 향한 나의 학업여정		수상	장려상
			학과(부)	글로벌언어문화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주제	복수전공	학년	3학년

변화와 발전을 향한 나의 학업여정

영어영문학과로의 진학

처음 대구대학교를 입학한 학과는 영어영문학과이다. 영어영문학과 진학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5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맞벌이로 바쁘셨기 때문에 공부방, 영어,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등 많은 학원에 다녔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오래 다닌 학원은 미술 학원과 태권도였다. 자연스럽게 미대 또는 체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체적인 결함이 생겼다.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손인 왼쪽 손목과 왼쪽 발목을 다치게 되었다. 2등으로 대회를 끝마쳤지만 운동을 장기간 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었다.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에 그 병원을 나오면서부터 허망한 감정에 미술과 체육을 동시에 포기했다. 한동안 삶이 지루했으며, 절망스러웠고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여겼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2020년 3월 COVID-19가 대구에서부터 확산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 등교 금지령이 내려졌었다.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였으나 나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월 한 달가량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림을 다시 그려봐도 후유증으로 손 떨림이 심했고, 운동을 너무 오래 쉬 탓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갈피를 못 잡은 채 방황했고, 5월이 되었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여자 상업고등학교였기에 동급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기 바빴고, 그중 극소수 학생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취업을 생각하지 않아서 자격증은 하나도 없었고, 성적도 최하위에 속한 학생이었다. 수시로 대학에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해야 했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혼자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은 힘들었고 어려웠다. 하지만,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4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재미를 붙이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11시간으로 늘어났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문제집과 하루를 함께했다. 12월로 미뤄진 수능을 치르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되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영어와 관련된 과를 진학해 아겠다고 다짐했고, 영어영문학부에 신청하여 정시 최종 합격자 발표 날에 합격하였다.

대학 진학 후의 변화

1. 교직이수를 하게 된 계기

대학교에 진학해도 나의 진로를 정하지 못했지만 평균 이상의 학점만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었다. 1학년 학점을 평균 이상으로 나쁘지 않게 마무리하였으나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진로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봤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교직과정 설치 학과에서의 교원 양성 과정인 '교직이수'라는 체계를 알게 되었다. 성적과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겨울방학이 끝나갈 2월에 지원했다. 교직이수 합격 소식과 함께 2학년이 되었으나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2. 심리학과 복수전공 계기와 과정

교사가 되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감정과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싶었다.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심리학을 복수 전공 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학창 시절 때부터 항상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요인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것인가 등의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흥미로웠다. 영어영문학과 교직이수를 과정을 수행하고 있어 심리학과 복수 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심리학과 복수 교직이수 합격을 통해 2학년 2학기부터 영어영문학과 교직 이수과 심리학과 교직 복수 이수를 하게 되었다. 두 개의 전공을 병행하면서 실패의 우려나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적극적인 시간 관리를 요구했다. 3학년 1학기 때부터 각각의 전공에 대한 수업, 과제, 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일정 계획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피곤함을 느꼈지만, 계절학기도 들으며 졸업 학점을 채웠다. 학점 4.33으로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했으며, 교사라는 직업에서 심리학 전공과목들을 배우며 살면서 처음으로 재미를 느꼈던 '뇌'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심리학과를 복수전공 전, 후 변화

1.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하기 전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하기 전의 나는 교사를 준비하면서도 고민과 의심이 있었다. "과연 내가 하

고 싶어서, 즉 자발적으로 영어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걸까?”, “내 성격과 과연 어울리는 직업일까?” 등과 같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한 학기를 끝나고 난 뒤에도 이러한 고민으로 쉽게 흔들리곤 했었다. 대답을 내리지 못하고 방학이 되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부터 생겨난 ‘완벽주의 성향’으로 또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았다. 영어영문학 전공과 교직이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체중도 점점 줄어들었다. 영어를 공부하고 교직과목을 듣는 것이 재미없었다. 교사라는 직업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과 사범대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공부한다는 것에 미안함도 느꼈다. 이런 마음을 숨겨가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교사가 꼭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도 나처럼 거짓된 말인지는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꿈이 있었다. 나도 거짓된 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다.

2.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한 후

(1) 멘토링을 하면서 경험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처음에는 교사로 일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발달 과정과 감정적인 측면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학생들과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자 했었다. 교직이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봉사 60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 3학년 1학기를 끝남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 60시간을 다 채웠으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께서 나에게 ‘꿈 나눔 멘토링’이라는 활동이 있다며 멘토링을 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다. 꿈 나눔 멘토링 활동상,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지정된 3명의 멘토를 지도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 총 3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나의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인해 멘티들이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논리적인 조언을 선호하는 경향에 일부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 뇌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이유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뇌는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뇌와 심리학을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느꼈다. 3학년 1학기 때 심리학과 과목 중에서도 ‘학습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신경 역학 부문을 듣는 동안 우리 뇌의 복잡성과 놀라운 능력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뇌의 복잡성과 신경전달 체계의 작용에 대해 알게 되면서 뇌의 복잡한 구조와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알고 싶어졌다. 뇌의

기능과 작용을 알게 되면 인간 행동과 마음의 심리적인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뇌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호기심이 ‘뇌 연구원’이라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 평소 나는 과학과 논리적인 사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분야가 나의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리학에 대한 깊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교에서 인지, 뇌 기능의 기본 원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심층적인 이해와 관련된 실험 기술을 배우고 싶어졌다. 또한,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지각하는지, 감정 등이 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이해를 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더 나아가, 뇌 연구는 끊임없는 발견과 진화하는 분야이므로 끝없는 도전에 어울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정했다.

느낌점

학기 도중에는 학점 관리를 위해 쉴 틈 없이 공부를 했고,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어떤 경험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따지기 바빴다.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뇌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봐야 할지 고민해 본 것 같다.

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많은 관심과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들었었다. 하지만, 뇌 연구는 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연구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함을 알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나에게 있어서 협력과 의사소통은 도전적인 부분이다. 부족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목 Title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채워나가는 나의 학교생활 라이프		수상	장려상
			학과(부)	경영학부(경영학전공)
주제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학년	3학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채워나가는 나의 학교생활 라이프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학교에 들어와서의 처음 가진 목표는 단순히 복수전공 하나는 반드시 취득하고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주전공 학위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은 것도 없었기에 1학년 2학기 때엔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주전공과 함께 배워두면 좋은 전공은 무엇일까? 등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과들의 커리큘럼, 진출 분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도 받아 보았고, 해당 학과의 사무실에 전화해 졸업요건과 자격 등을 여쭙보기도 하였으며, 교수님과 상담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최종 선택은 내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 학과를 선택할 시기엔 부모님과 함께 주말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농작물들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물들이랑 관련되는 일을 배우는 것이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산림자원학과였습니다.

수업이 재밌어지는 매직(magic)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복수전공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또한,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재미있게 들은 교과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산림자원학과 교과목이 손에 꼽힐 겁니다.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수업을 들으러 과정이다 보니 과학생명융합대학교 5호관으로 가는 길은 평소 학교를 걸을 때보다 싱그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업 들으러 가는 길은 늘 즐거웠습니다. 봄에는 벚꽃잎과 농장의 울타리와 조

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장미, 여름에는 싱그러움이, 가을에는 노랑꽃들과 함께 부는 산들바람, 겨울에는 떨어진 낙엽들 소리를 들으며 갔습니다. 더불어 산림자원학과에서 수강하다 보면 나무의 종류와 학명, 성분 등에 대하여 배우다 보니 이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떠한 종류인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산림자원학과는 화학을 많이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였기도 하고,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수업을 따라가는 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해하였나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선 “제가 학교 다닐 때 화학 관련 수업만 36학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면 제가 너무 허무하죠”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괜찮다’라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원동력 삼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수업 마치고 바로 물어보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단순히 흥미가 있고, 배우고 싶어 신청한 복수전공이라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나갈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확실한 것은 이 전공을 선택한 데에 있어서 후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일 전공을 할 때보다 더 넓은 시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들 채워가는 내 미래

저에게는 복수전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것이 많기에 하나 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전공 수업 시간에 융복합전공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외식산업경영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융복합전공에 주전공이 속해 있다면 학점이 최대 6학점 인정이 되고, 졸업시험도 주전공에서만 통과하면 되었기에 이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공과 함께 듣는다면 원하는 방향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더불어 산림자원학과를 함께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4학년 때까지의 커리큘럼을 계산해 보니 무사히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곧바로 융복합전공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융복합전공은 식품영양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등이 여러 학과가 모여 만들어진 전공이기에 만일 식품영양학과 2학년 과목을 수강할 때는 선수과목을 듣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보다 두 배는 열심히 필기하였습니다. 3색으로만 필기를 했다면, 이전보다 많이 구분되게끔 필기하는 등 공부 방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상대적으로 전공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기에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알기 위해서 피드백을 구하고, 조원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결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융복합전공은 정확하게 어느 과에 속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학우들보다 공지 사항을 늦게 받는 경우도 강했지만 놓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혹시라도 창의 융복합전공을 하고 있는 선후배가 있다면 멘토링을 진행하여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외식산업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명확한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아무도 모르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나씩 결과를 낼 때면 뿌듯합니다. 설령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피드백을 받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주전공은 다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 명확히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부·복수전공을 통해 배우면서 나아가고 싶은 길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고, 보다 전문성 있게 진로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복수(융복합)전공을 희망하는 학우님들이 있다면 일단 도전해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탐색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그 속에서, 과정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복수(융복합)전공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Title	새로운 도전, 넓은 시야! 생명공학과 경영학이 만나는 나의 이야기		수상	장려상
			학과(부)	생명공학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4학년

새로운 도전, 넓은 시야! 생명공학과 경영학이 만나는 나의 이야기

본 전공 생명공학과, 복수전공 경영학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생명공학과 본 전공으로, 경영학은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다. ‘경영학 복수전공’은 내가 대외활동을 신청하든 전공을 묻는 그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 큰 힘을 가지는 표현이다. 생명공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나를 소개하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생명공학과랑 경영학은 너무 다른 내용 아닌가요?’, ‘왜 굳이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나요?’ 등의 문장이다.

생명공학 학생으로서 경영학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다. 나는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경영’에 있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는 비즈니스 관련 지식의 필요성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기업 창업이나 산업 협력 등의 비즈니스 활동은 중요한 부분이다.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함으로써 비즈니스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생명공학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다.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살아가면 조직 내에서 팀원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경영학 복수전공을 통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원칙과 리더십 스킬 등을 배우고, 효율적인 팀 관리와 역할 분담, 의사 결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업 기회 발굴과 창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세상은 다양한 변화의 연속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 등의 경영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영학 복수 전공은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 번쯤 들어봤던 SWOT 분석, 4P 분석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

네 번째 이유는 전문성 확장과 취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이다.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혹은 기관에서도 경영적인 역량과 지식은 중요시되는 요소다. 경영학은 다양한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넓은 시각을 제공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성장 및 발전의 목적이다. 경영학 과정은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다양한 역량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장은 어떤 분야든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나는 생명공학 학생으로서 경영학 복수전공을 결정하게 되었다. 생명공학의 전문지식 외에도 비즈니스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함께 갖추어진 융복합 인재가 되고자 도전했다.

생명공학과·경영학 지식을 결합하여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다.

나는 2022년 동안 창업동아리 라트팀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 당시에는 경영학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이 갑자기 1년 동안 창업 동아리를 이끌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경영학 복수전공을 시작한 것은 2학년 2학기부터였기 때문에, 2학년 1학기에는 혼자서 창업 관련 서적들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를 느꼈다. 사업 계획서 작성과 아이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생명공학 전공으로는 기술적인 지식은 보유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영역에서 필요한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경영학 수업을 듣는 순간만 기다렸다.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됐다. 2학년 2학기에 배운 '재무의 이해'와 '회사법' 수업은 창업과 사업 확장에 대해 더욱 확장적인 시야를 제공했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투(DART)를 이용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예산 설정, 자금 조달 방법 선택 등의 창업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경영학 복수전공으로 얻은 지식은 동아리 내부의 재무 상황 파악과 자금 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영 핵심 원칙인 조직 운영과 리더십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라트팀의 회장으로 활동하

며 팀원들 간의 협력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팀원들의 역량 발전을 위해 능력관리와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리더십 스킬은 조직 내부에서 협력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덕분에 2학년 2학기에 창업동아리 중간 점검 때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1년 동안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2022년 국방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와 'Stop Covid-19 SW Challenge 아이디어 해커톤'에서 1차 합격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한경잡아라 취재기자로 활동하며 '우수기자상'을 받다.

〈“밝은 취업 전망, 높은 발전 가능성”... 대학 AI학과 인기〉,〈포천 딸기힐링팜 운영하는 30대 “네덜란드형 모델 만들것”〉,〈기록하는 습관이 취업의 당락도 좌우합니다〉 위 제목들은 한국경제신문 한경잡아라 취재기자로 활동하며 발행한 기사 제목이다.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한경잡아라 기자는 3학년 1학기 때 도전한 활동이다. 경영학은 한경잡아라 기자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경영학 수업에서 배운 경제 이론과 기업 관련 지식은 한국경제신문 학생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산업 동향과 금융 기반 이론 등의 내용을 다루어주셨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경잡아라 기자 면접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6개월 동안 기자로서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경영학 복수전공으로 얻은 지식과 관점은 현재 사회 및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경잡아라 기자로서 실시간 동향과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보도하며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골로 귀농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이슈를 파악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취업과 기록과 연관 지어 마포구에서 1호 기록학자인 김익한 교수님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또한, AI 학과가 늘어나는 현재 추세에 주목하여 170명의 AI와 인공지능 학과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서 AI 학과 관련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한경잡아라 기자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며 나는 크게 성장했다.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의견과 견해를 듣는 것은 큰 보람이었다. 이러한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배운 비판적 사고와 중립적인 보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몸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경영학 지식과 실전적인 역량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와 사회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며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덕분에 올해 8월 27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한경잡아라 해단식에서 좋은 기사와 콘텐츠 제작에 탁월함을 보여 우수 기자로 선발되었다.

‘홍보와 마케팅’에 경영학 지식을 녹여내는 대백제전, 드림디포, KOBIC 기자단

현재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나는 이번 학기에 3개의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2023 대백제전 기자단, 드림디포 서포터즈, 국가생명연구지원정보센터(KOBIC) 기자단 활동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홍보 기사 그리고 칼럼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먼저, 2023 대백제전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매달 2~3개의 칼럼을 작성하고 있다. 백제문화재단 및 공주 부여 여행과 관련된 칼럼을 작성하여 귀중한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며 문화를 알리는 역할이다. 대백제전 기자단 활동은 경영학에서 배운 리서치 및 분석 능력과 연관이 있다. 경영학 학문은 데이터 분석 및 리서치에 중점을 둔다. 마찬가지로, 칼럼을 작성할 때도 사실 확인, 자료 조사,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친다. 경영학에서 배운 리서치 및 분석 능력은 정확하고 근거 있는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3학년 1학기에 배운 ‘글로벌경영’과 ‘기업과 국제환경’을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3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문구 회사 드림디포와 KOBIC 기자단 활동에서도 해당 기업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효과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니즈와 재무 계획서 등을 읽고 자세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3학년 1학기 ‘마케팅원론’에서 배운 홍보 PR 및 마케팅 원리와 전략적인 사고법은 드림디포와 KOBIC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마케팅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마케팅은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의 니즈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맞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드림디포 대외활동에서 마케팅 관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드림디포의 PB 제품과 유통 제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체인점 방문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드림디포를 널리 알려야 한다.

드림디포라는 브랜드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타겟 시장 분석, 고객의 니즈와 요구사항 파악, 브랜드 포지셔닝,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의 마케팅 개념과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세그먼트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고, 해당 세그먼트에 맞춰 메시지와 제공할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드림디포에서 문구 제품을 구매하도록 콘텐츠로 유도해야 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매달 4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드림디포 뿐만 아니라 국가생명연구지원정보센터(KOBIC) 기자단으로 콘텐츠를 작성할 때도 경영학 이론을 뺄 수 없다. KOBIC 기자단은 ‘바이오소재’라는 개념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아내야 한다. 바이오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생명공학 분야의 소재들을 의미한다. 세부 분야도 다양하다. 매달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할 때 마케팅 원론에서 배운 타겟 시장 분석을 통해 어떤 세그먼트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맞춰 메시지와 제공할 가치를 설정한다. KOBIC 기자단 활동에서도 기업의 니즈와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가치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내용과 메시지 디자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에서 배운 ‘마케팅원론’ 이론은 2023 대백제전, 드림디포 및 KOBIC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대중들에게 지역 축제와 바이오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분야를 아우르며 ‘현대와 미래 사회에 대응력’을 키운다.

경영학 복수전공 선택은 나에게 많은 가치와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 물론 복수전공이 쉽지는 않다. 익숙했던 공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교수님들을 만나고, 20~30명이 수업 듣는 소수 과에서 한 수업에 100명이 듣는 대형과 수업을 들어야 한다. 복수전공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전공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업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 관리와 계획성은 필수다. 그리고 단일 전공보다 더 많은 학점과 교과 과정 요구 사항을 가진다.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수전공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도전의 연속이다. 그래서 적응력과 유연성이 요구된다. 복수전공은 앞선 어려움도 함께 가져오지만, 동시에 큰 보상도 줄 수 있는 선택이다. 두 개의 전문 분야를 보유함으로써 넓고 깊은 지식 범위를 갖출 수 있으며, 취업 기회와 경쟁력도 향상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학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니 경영학에서도 여러 친구와 친해질 수 있었다. 어렵고 낯설었지만 도전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고 발전했다.

경영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융복합적인 관점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며,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개방된 마음가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경영학 복수전공은 내게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삶의 지혜는 ‘경영’에 있다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와 함께 결합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고 프로젝트 수립부터 실행까지 성공적인 결과물 도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경영학 과목들을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결합할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과 도구들도 익히고 싶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및 의사전달 기술을 향상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이디어와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영학과 생명공학 분야 간 융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현재와 미래 사회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

제목 Title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수상	장려상
			학과(부)	영어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휴학	학년	3학년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자기소개

저는 2021학년도에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현재 3학년 1학기를 이수 중이며, 일반 사회교육과를 복수전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하는 꿈을 찾아 하나씩 이뤄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계획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에게도 많은 고민과 방황의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학과 복학의 계기와 과정

저는 휴학과 복학, 복수전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휴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과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성적에 맞춰서 입학하기 급급했고,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저는 저의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결심하게 된 후 담당 교수님과 상담 후 학적 변동이 완료 연락을 받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개월간의 휴학을 시작 하였습니다. 휴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엔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조언과 상담 시간을 가졌고, 이 과정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며, 학과 진학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휴학 상담의 방법은 대면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진행했고, 휴학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강의에서 담당 교수님과 개인 상담 시간마다 틈틈이 휴학 상담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사범대생이라면 군대를 제외하고 휴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대한 빠르게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한 번이라도 더 응시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만큼 신중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휴학 기간엔 미래 계획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수험생 때는 해보지 못했던 여행과 취미생활, 영어 공부 등을 해오며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보충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휴학은 한 학기면 충분했습니다. 한 학기를 휴학하고 복학을 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흔히들 피해라고 했던 ‘엇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범한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학기가 바뀌어 진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엇학기가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획과 함께 학생들을 챙겨주시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담당 선생님’이 없기에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특히 필수과목을 제때 수강하지 못했던 점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힘들어 있는 ‘엇학기’라도 제가 한 학기 만에 복학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임용고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위의 사범대학 학우분들을 보며 항상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이며,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약 1년 동안 학교를 재학하면서 사보았던 주위 학우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며들어 지내왔던 덕분일까요? 저는 고등학생일 때보다 대구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사범대학에 같은 꿈을 가진 학우분들과 수업을 들을 때에 저의 꿈은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생겨나는 중입니다. 학기 초에는 진로에 대한 방향을 많이 했고, 열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영어교육과에 입학하고, 휴학과 복학을 겪고 난 뒤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결심하게 된 계기 및 과정

복학하고 난 후 첫 번째 계획은 ‘일반사회교육과로 복수전공을 하기’입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을 뿐, 막상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며, 학생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장 관심 있는 분야였던 ‘사회문화’와 ‘경제’를 학생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새롭고 구체적인 꿈이 생겼고, 그 마음 하나로 복수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학기마다 복수전공 신청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즉, 1년 내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전공 신청 기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 확인 또한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었

습니다. 복수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이상을 이수 중이어야 가능하며, 저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이었으므로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 전공 이후 변화된 학교생활

복수전공을 통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 대한 열정의 변화’입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한 욕심도 많은 편이며,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본 전공(영어교육과) 이외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복수전공이라는 학적 변동 시스템에 관심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업이 즐겁다는 느낌과 함께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1학년 1학기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재학 중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공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니 자연스럽게 교양 수업, 비교과나 학과 생활,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참여도도 같이 올라간 점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꿈에 그리던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대학 만족도도 높아졌고, 학교와 학과를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학과 복학의 경험도 중요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복수전공의 기회가 인생에서 더 중요한 ‘터닝포인트 (turning point)’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실제로 저는 본전공만 공부했을 때인 1학년 1학기에는 성적도 매우 나빴습니다. 전체 학과 인원 53명 중 47등을 했습니다. 주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적을 보이자 전공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함께 저에게 맞는 진로인지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휴학, 그리고 복학과 함께 복수전공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의 미래에대한 관심과 목표도 함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 학기가 지날수록 등수와 학점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7등으로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빨랐던 저의 등수는 28등, 9등을 하고 마침내 1등을 해볼 수 있는 경험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수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 등수를 보며 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전공을 한다고 해서 성적을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건 모두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복수전공을 한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배울 아이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전공 역량을 올릴 방법만을 꾸준히 고민했고,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한 번의 시험을 치기

위한,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에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된 휴학의 시간과, 저의 구체적인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던 복수전공의 경험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여유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졸업도 늦어졌지만 그럼에도 저는 또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복수전공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회와 장점

복수전공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굳이 더 힘들게 졸업하려고 그래?’ ‘굳이?’ ‘졸업학점 채우려면 계절학기 수강은 필수겠다.’ 등의 이야기들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이 말들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일반 졸업학점은 140학점이지만 복수전공시에 졸업학점은 더 추가되며, 전공학점도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 학기마다 계절 학기를 수강해야하며, 복수전공과 본전공의 수강시간이 겹쳐 학과 커리큘럼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남들은 여유롭다면 여유로울 수 있는 4학년 시간표에도 저는 최대 수강학점으로 들으며 졸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하여 복수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학교를 재학 중에만 가능한 가장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장이 2개입니다. 본 전공의 졸업과정과 복수 전공의 졸업과정을 모두 끝내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2개의 졸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직 복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원자격증 또한 해당 과목으로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업 분야가 2배 이상으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공만 이수하는 것보다 두 개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한다면 더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여러 경험을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미래에 취업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복수전공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또한 진로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범대학에 한정하여 임용고시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과목 2개 모두 임용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립학교 교사를 희망하지 않고,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교원자격증을 지니고 있기에 취업에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학과만을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학생들과 교수님, 수업을 만나보고 전문을 넓힐 수 있지만, 저는 복수전공을 하고 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졸업할 때까지 겪을 더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수전공의 장점은 더 많겠지만, 제가 복수전공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복수전공을 시작하면서 저는 2배 이상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졸업까지 돌아야 될 전공학점이 약 40학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졸업학점계획도 세워보고, 항상 모든 일에 미리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 1학기를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사회’를 더 깊이 공부하여 이에 대한 임용고시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두 전공에서 모두 선배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자격증 이수 조건인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교육 봉사, 교생 실습,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교생 실습 활동과 임용고시 응시 과목을 현재까지 ‘일반사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전공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시기에 입학하여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대학 생활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과행사, 전공역량 발전 등 한번뿐인 대학생활을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내보고 싶습니다.

마무리 말

저는 2021학년도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후 대학생활을 누리기도 전에 다양한 진로 고민에 휩싸여 대학생활을 즐기지는커녕 방향을 많이 하며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민과 방향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그 불안하던 시기에 학교의 다양한 학적 변동 시스템과 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신 저의 담당 교수님, 그리고 진로에 대해 제 주위에서 항상 끝까지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현재엔 가장 만족스러운 학과생활을 하고 있음에 그분들에게 이렇게나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직도 복수전공에 대해 잘 모르는 학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서,’ ‘졸업학점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등의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며, 꿈을 위해서라면 한 시도 망설이지 말고 뛰어들라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땐 실패를 하더라도 실망과 후회가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적 변동 수기사례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Title	학적변동(전과) 성공 사례		수상	장려상
			학과(부)	재활공학과
	주제	전과	학년	4학년

학적변동(전과) 성공 사례

전과 계기

1, 2학년 성적은 바닥이었습니다. 코딩의 언어,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학업과 떨어진 저는 자연스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물 흐르듯 1학년이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열심히 학업을 하는 학생과 저를 비교하며 졸업,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변화된 모습 없이 2학년 1학기를 재학하며 시간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바뀌지 않은 자신을 보고 편입과 전과를 알아보고 11월 15일 재활공학과로 전과를 결심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재활이 유명하고 공대 수업을 들은 나는 조금 쉽지 않을까 하며 무거운 현실 속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전과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과 과정

먼저 기존의 컴퓨터 공학과 담당 교수님과의 상담이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었지만 많은 학생 중 하나였던 저에게 전과에 대한 상담으로는 영양가 없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기존의 학과와 적합하지 않나?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등의 말씀을 하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전과의 허락을 맡았고 학과장님께 담당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드려 전과신청 전형서류에 직인을 받고 학과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저는 혹시라도 떨어지진 않을까 하며 걱정했고 결과는 다행하게도 합격이었습니다.

전 후 행동 및 성적 변화

전과를 하기 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고 나와 적성이 맞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더욱 게을리

하였고 과제를 조금하고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했으며 전공 코딩 수업이 아닌 교양 수업조차 같은 생각으로 강의에 임했으며 의지도 없고 게으른 제 자신을 바꾸고 싶다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을 버린 제 자신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다졌고 전과를 신청했으며 통학으로 인해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없애기 위해 자취를 시작했고 전과 학과의 자격증을 목표로 다음 학년의 계획을 세우며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학기인 3학년 1학기 장학재단, 학교 홈페이지, 학생증 등 소속된 저의 모든 정보가 전과를 성공한 단대, 학과로 바뀌었으며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1, 2학년의 전공과정은 모두 일반교양 강의로 바뀌게 되었고 처음부터 전공학점을 채워야 하는 전 1, 2, 3학년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3학년이지만 새로운 과에 대한 지식은 1학년도 안됐기 때문에 조금했지만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16학점으로 5전공을 신청했고 1학년 강의는 수업허가서를 신청하여 수강했습니다. 하나의 강의를 끝내고 강의가 없는 공강 시간들은 단대 라운지에서 보냈습니다. 강의들을 복습하고 예시 문제들을 풀었으며 전문 용어들을 외웠고 시험기간 한 달 전부터 강의를 끝나고 도서관을 갔으며 도서관 종로 시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이 전의 학과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1학기가 종료 되고 성적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과하기 전 뒤에서 2등을 수시로 하며 바닥 치던 성적이 180도 변해 학년 2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며 남들보다 조금 늦다는 생각으로 예민해져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던 날들을 보상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기쁘고 뿌듯했으며 학적변동 전까지는 성적 장학금이란 단어와 가까워 질 수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 =했지만 이번 전과를 통해 성적이 오르게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성적과 미래의 확신이 생겼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장학금 또한 찾아보며 다음 학기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학적변동 전, 후 자신의 대한 느낀 점

학적변동을 하기 전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던 장래희망조차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남들이 장래 희망을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미래에 다가갈 때 뚜렷한 목표 없이 남들을 따라 하며 거짓으로 장래 희망을 적었고 다들 한 발짝 다가갈 때 저는 놀고 있었으며 대학 또한 어름이 되는 부담감, 책임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마음은 없었고 학습에 대한 회피책을 찾기 바빴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기혐오와 위로를 반복할 뿐이었으며 나의 객관적인 평가를 듣기 싫어 더욱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2학년 학기 초부터 학적변동을 원했지

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저 라는 학생은 학적변동을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고 용기였습니다.

한 번의 마음가짐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에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이 학과의 미래에 직업, 복수전공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싶고 게으르던 행동 또한 학업에 열중하며 시험 한 달 전부터 오픈 마감으로 도서관에 감으로써 자동으로 부지런해졌고 지금은 교내 근로를 함께 겸하고 있으며 성적 또한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의 학업 시간표를 보고 다른 학생들은 경악하며 걱정을 해줍니다. 학적변동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빈 공간이 아예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재미있습니다. 학적변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라는 사람이 180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므로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원하시는 학적변동을 성공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Title	불안감에서 자신감으로 경험을 통해 성장한 1년		수상	장려상
			학과(부)	경영학부(경영학전공)
	주제	휴학	학년	4학년

불안감에서 자신감으로, 경험을 통해 성장한 1년

다양한 경험과 실무능력의 필요성을 느끼다.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진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던 중, 더 많은 경험과 실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내고자 했기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실무 경험 쌓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2022년 1년 동안의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첫째로, 대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두 번째로,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서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관련 직종 인턴 경험을 쌓기로 다짐했습니다.

‘실패로부터 얻은 인사이트와 경험’

휴학 후, 희망 회사의 인턴십 지원과 규모가 큰 대외활동 참가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활동에서 불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단순히 실망으로 끝내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인턴십에서 어학성적 부족과 포트폴리오의 문제로 인해 불합격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언어 능력 향상과 포트폴리오 작성 시,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선별하고 그 경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창적으로 디자인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경험의 내용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평가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대외활동에서는 면접에서 면접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불합격의 원인이었습니다. 면접관이 활동에 대해 언급하면 해당 활동에서 맡은 직책, 과정, 성과, 그리고 느낀 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1. ‘카카오 뷰 에디터Z’ 대외활동

2022년 1월 1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카카오 뷰 에디터 Z’ 대외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 활동은 큰 인사이트와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악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성과를 경험했습니다. 3개월 동안 50개의 콘텐츠를 큐레이션 했으며, 최대 채널 보드 노출 수 52만 명, 보드 방문자 수 37만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경험은 ‘카카오 뷰’라는 새로운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혁진 작가, 정문정 작가, 차우진 평론가, 신기주 기자, 김짚부 유튜버, 귀찮 작가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 역량을 향상했습니다. 이러한 저명한 멘토들로부터 배운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아르바이트

2022년 9월 8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이 기간에 KOCW 강의 자막 제작 및 검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 그리고 공공 기관 홍보영상에 대한 자막을 제작하고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경험은 더 넓은 학문적 관심사를 개발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강의 자막 제작은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막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강의에서는 상경 계열, 다른 강의에서는 인문, 의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업무 담당자와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업무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경험은 비즈니스 메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학문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경험은 앞으로의 진로와 학문적 탐구에 있어서 나에게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턴 활동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경영기획팀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주요 근무 업무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홍보 업무와 경영 관련 서류철 업무였습니다. 이 경험은 실무와 프로세스 이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기간의 업무에서 가장 강조한 능력은 에디팅 능력이었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작성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툴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 관련 서류를 처리하면서 업무의 핵심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배운 적이 없는 분야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전 연도 파일을 참고하여 스스로 업무를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쌓은 지식은 미래의 경영 및 기획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사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즈니스 에티켓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팀으로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협력과 의사소통이 성공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미래의 직무를 수행할 때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향상해 콘텐츠 마케터 직무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조직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한 1년과 깨달음’

1. 마음가짐의 긍정적 변화

휴학을 하기 전,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막막함과 불안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번아웃을 야기하고,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휴학을 통해 이러한 마음가짐을 크게 변화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휴학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이루고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감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자신감은 미래의 도전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 마케터로서의 자질 향상

휴학 과정을 통해 저는 마케터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그리고 인턴 경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을 뛰어넘어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도구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간단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외활동과 인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기존보다 더 원활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콘텐츠에 대한 통찰력을 확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콘텐츠를 다룰 때 굉장히 얇은 지식만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콘텐츠의 영감을 어디서 얻어오며 어떻게 트렌드를 파악하는지 등에 대한 사고방식이 크게 발전한 것을 느낍니다.

3.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찾아온 또 다른 기회

휴학 중에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가게지기 2기' 대외활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등록하고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터뷰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를 디지털 환경에 적응시키고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시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재개장한 예산시장 및 주변 상권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과 업데이트를 작업했습니다. 이로써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이들이 대기시간 동안 주변 먹거리와 볼거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예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 업무와 노력이 인정받아 우수 활동가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을 정도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유기적으로 연결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활동에서 거절당한 아이디어가 나중에 학교 과제에서 A+ 성적을 받는 아이디어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면접 능력이 향상되고 변화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도전으로 기회를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꾸준한 도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저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학교의 대학생들과 업계 현직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이나 직종, 직급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는 아이디어 도출과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노력하고 자신을 차별화하는가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후, 동기와 후배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비슷한 분야를 희망하는 학우들에게는 적극적인 고민 상담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휴학 기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정말로 소중하고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나 자신과 미래에 대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목표 설정과 이행은 나 자신에게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목표를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 내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꾸준한 노력과 목표 설정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나날이 다가오는 졸업까지 남은 이 마지막 1학기를 후회 없이 보내고, 미래에 대한 높은 비전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저의 성장과 성취를 지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제목 Title	나 자신을 이기는 대학생활!!!!		수상	장려상
			학과(부)	SI학부(AI소프트웨어전공)
	주제	전과	학년	3학년

나 자신을 이기는 대학생!!!!

순탄하지 않던 학교생활

고등학교 때 장래와 꿈을 정하지 못한 저는 대학교는 대부분 진학하는 곳이니 가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구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잡생각도 많아서 생각하며 인류의 원전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인 생명 과학을 학습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생명과학과로 진학했고 선택한 과가 맞지 않다면 학교에서의 전과는 자유롭다는 대구대학교의 입학 사정 안내를 받고 성적에 맞춰 생명과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과에 입학한 후 배움에 기대감이 차 있었지만 제 생각보다 정밀하고 세세한 학문인 생명과학과에 맞지 않았고 그 후 목표와 장래를 못 정한 저는 학과 생활에 적응 못 하여 이리저리 방황하였는데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우울함이 찾아와 학교도 안 나와 집에서만 10일 정도 틀어박혀 있고, 밥도 안 먹으면서 수업을 듣는 등 마는 등 꾸역꾸역 학사경고를 피하고자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1년을 버틴 저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다 말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마음가짐을 바꿔서 오겠다고 설명해 드렸다.

군 휴학 이후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던 저는 군대에서 잡생각 없이 일할 것하고 쉴 거 쉬면서 단체생활에 익숙해졌고, 코로나 시기를 나름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우울감은 없어지고 자신감이 조금 붙은 상태였다. 군대를 다녀온 후 저는 생명과학과가 안 맞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 해 1학기를 더했지만 안 맞는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과 준비를 하게 되었다.

전과 과정

많은 상황을 겪고 나에게 맞는 과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답을 찾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무서웠다. 사회생활을 겪어 보지 않은 학부생 관점에서 내가 생각한 결론은 대학교의 수업 과정을 토대로 사회에 나아가서 쓸 가능성이 크다 보니 당연히 신중하게 되고 이후를 나의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온 결괏값은 자동차를 좋아해서 기계자동차공학부나 한창 인기 많고 프로그램 언어에 관심이 있는 AI 학부 중에서 심히 고민하다가 AI 학부 다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고 상담도 해본 결과 자동차 학과에서는 노 베이스로 학과 친구도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학부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기가 쉽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3주간 고민을 친구의 도움으로 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2학년 2학기 과정을 배우는 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파이썬, 자연어 처리,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 AI에 접목할 수 있는 모델 구현을 배우는 것이기에 영어도 잘하지 못하던 나는 배움에도 느리고 어려워져 정신력도 흔들렸다. 그런 와중 학부 소개해 준 친구가 딱 붙어 다니면서 모르는 것 있으면 알려줄 테니 물어보고 팀 과제도 같이하고 DODO 멘토링 같은 활동까지 하면서 학습에 대해 도와주면서 높은 학점은 아니지만, 중간보다 살짝 밑의 성적을 맞아 가능은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와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친구나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멘토처럼 나에게 있어 배움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고마웠다. 그리고 이후 공부를 하여 3.91 학점을 맞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성장을 해냈다.

사람의 변화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나는 학교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우울함도 오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식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혼동이 올 정도로 몸과 마음이 고장 나있었다.

그러나 친구의 도움과 군대에서의 마인드 셋 정리 그리고 전과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고찰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며 스스로가 성장하여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몸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취업 전 지금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해봤을 때 학부생 관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대외활동과 대회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한 나의 판단으로 3학년 1학기에는 팀을 들어가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linc+ 캡스톤디자인대회에 우수상을 수상받고 방학에는 북클럽을 활동하며 지금은 DODO 멘토링의 멘토 활동

과 SIG의 팀장을 하는 등 사회에 나가기 전 자신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기반을 천천히 다지는 중이다.

대외 활동을 함으로써 나의 가치 높이고 자신감도 높아지는 체감을 했기에 힘들지만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나의 미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과하기 전의 나보다 현재의 자신이 스스로 알을 깨어내 새가 되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과하며 느낀 점

나에게 있어 “전과”라는 단어는 두려운 의미였지만 최고의 선택이었고, 변화할 수 있는 길목 중 하나였다. 그리고 새로이 배우는 것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지금은 만족 중이다.

하지만 나는 전과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전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같은 경우는 내 목적이 전과하여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겠다는 목적보다 자신의 변화를 키포인트로 전과를 한 것이기에 내 경험 대한 이야기가 답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고 학부생 친구가 있었기에 도움을 받은 것이 전과에 대한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2023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아카데미코칭센터

053) 850. 5854 <http://acc.daegu.ac.kr/academic/main>